

朝鮮朝 印花文 粉靑沙器의 樣式分類

樣式分類

金 英 媛

I、序 言

朝鮮陶磁史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두된 수없는 문제점들 중에 壬亂을 區劃線으로 하여 그 以前인 朝鮮前期에 大種을 이루었던 粉靑沙器의 具體的인 編年이란 문제에 當面하여 다소 미흡한 感이 없지 않았다. 이에 筆者는 우선 印花文粉靑沙器에 국한하여 그 樣式分類를 試圖하였다.

朝鮮朝의 印花文粉靑沙器(以下 印花文粉靑으로 略)는 胎土·釉藥에 있어서 高麗의 象嵌靑磁와 一脈相通하는 바, 象嵌靑磁에서 印花文粉靑으로의 移行過程과 印花文粉靑의 盛衰樣相을 兩者의 比較·分析을 通해 究明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研究의 背景자로서는 筆者가 직접 現場에서 하여 彩集한 麗末鮮初의 象嵌靑磁末流(末期系流陶)片들과 國博所藏의 金谷里窯出土品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의 陶磁史的인 位置는 참으로 莫重하다 하겠다.

그리고 印花文粉靑과 귀얄文粉靑과의 關係를 조심히 살펴 多岐와 異說에 對한 既存理論에 다소의 수정을 加하였다.

II、印花文粉靑沙器의 發生(象嵌靑磁末流의 樣相)

粉靑沙器의 發生年代에 관해서는 現在까지 여러 學者들의 說이 있는

데, 크게 麗末發生說과 鮮初發生說로 區分되며 鮮初說이 강력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後述할 象嵌靑磁末流와 朝鮮初의 有銘印花文粉靑의 例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象嵌靑磁末流의 胎土·釉藥은 물론 製作技法이나 器形、文樣、구도、施文技法 등을 분석하여 編年을 잡고자 한다.

一、忠孝洞第一、二號窯出土品

忠孝洞第一、二號窯는 同一地域 內에 있던 하지만 印證해 있지 않은 두窯로서, 第一號窯는 光州에서 西南方으로 약 四·六 km 되는 지점으로 金谷里로 가는 도로 인편 山麓의 저수지 앞의 밭이고, 第二號窯는 光州忠孝洞河站부락 절골(절터골)窯址이다. 특히, 절골窯址에선 靑磁末流의 「司膳」銘이 象嵌靑磁된 접시 두점이 發見된 바 있어 ① 注目된다.

이 두窯址는 모두 印花文粉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象嵌靑磁末流窯址로서 代表的이며, 器種·器形뿐 아니라 胎土와 釉藥 그리고 製作技法에 있어서도 同一함을 보이고 있다. 器種은 대접·접시類가 主이고 기타 壺、盒、瓶、陶枕 등이 發見되었다. 胎土는 짙은 灰色이며 氣孔이 약간 있고, 釉色은 짙은 暗綠色으로 一貫한다. 器形은 대접의 경우 口緣이 垂直 또는 內彎하고 側下部가 斜面을 이루는 異形과 口緣이 外反하고 側面이 仄仄한 曲線을 이루는 것의 두 종류인데, 이들의 內底面은 圓心을 과녁 것과 과녁지 않고 편평한 것으로 區分된다. 이들은 胴部가 훌쩍하고 전체적으로 量感이 결여되어 安定感이나 균형감각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고령 象嵌靑磁의 退化된 最末期의 樣相을 띤다. 다음에 文樣을 內面에서부터 살펴보면, 口緣部 제 一、二段에 卍字文이나 唐草文을 白象嵌하고 그 아래 側面에는 三―四個所에 抽象化된 草文이나 柳文 또는 變形된 蓮花文 등이 삽입된 톱니바퀴形의 小菊文을 二―三條 印花하고 다시 그 아래에 如意頭文이나 蓮瓣文을 印花하여 內側面이 四段의 文樣帶로 구성되었으며, 內底面은 中央에 菊花 하나를 배치하거나 空白으로 두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內側中心文樣의 構圖 즉, 小菊이

나 唐草文과 같은 文樣은 地文으로 하고 그 중간 공간에 또 다른 文樣이 삽입되는 형식은 初期靑磁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末期의 「正陵」靑磁대접(圖 1)을 보면, 蓮唐草文을 地文으로 하고 그 사이에 커다란 蓮花를 黑白象嵌한 것을 직결되는 一例로 들 수 있다. 이 「正陵」靑磁대접의 구도는 忠孝洞窯出土品에서 그 素材만이 바뀐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湖巖所藏의 「司膳」靑磁대접으로 연결되며 또 後述할 고령군沙鳧出土品과 같은 靑磁末流와 鮮初의 「恭安」靑粉靑대접의 경우에도 선 완전히 「正陵」靑磁대접과 똑같은 文樣素材와 構圖를 보여 주고 있지만, 훨씬 退化되었다.

그리고 外面은 口緣에서 좀 떨어져서 二—三條의 線이 白象嵌되고 그 아래 胴部中間에 草文이나 鋸齒文形的 抽象化된 草文이 비스듬히 거칠게 象嵌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口緣部에 卍字文이 象嵌되고 그 下部에 唐草文이 施文되었는데 圖式化的 경향이 현저하여 一三一—四世紀後半의 干支靑磁대접이나 「正陵」



圖 1 「正陵」靑磁象嵌唐草文대접

靑磁대접(一三七二年頃)에서의 外面中心文樣보다 훨씬 退化된 모습이 다. 또 側面中間에 中心文樣帶와 그 밑에 蓮瓣文帶를 둔 例도 있다. 이처럼 內側面은 四段으로 細分되어 中心文樣帶의 幅이 줄어들고, 外面은 대개 無文 또는 二段구성을 이루는 것이 文樣面에서 본 象嵌靑磁末流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文樣상의 退潮現象을 더욱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一例를 들면, 側面中間部分에 上·下 一條의 線을 그어 文樣帶를 만들었고 그 안에 아무 地文없이 菊花文만을 떠엄터엄 몇個所에 配置한 것이다. 이러한 文樣은 고려靑磁대접의 外側面 四個所에 菊折枝文을 圓圈 內에 배치하고 주위의 여백은 唐草文으로 메우던 施文方式이 省略되고 소홀해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두窯址出土品の 文樣素材를 검토해 보면, 龍文, 蓮花文, 菊文, 如意頭文, 蓮瓣文, 卍字文, 唐草文, 格字文, 雨點文, 波狀文, 連珠文, 작은圓 三—四個가 삼각형구도로 모여 이루어진 文樣, 그리고 네개의 點으로 구성된 花文 등이 있어 文樣의 구도뿐 아니라 素材에서도 象嵌靑磁와 印花文粉靑의 混合樣相을 엿볼 수 있다. 이들 文樣은 매우 稚拙하고 印花文은 성글게 施文되었으며 口緣部の 卍字文이나 唐草文은 波狀文이나 지그재그形的 文樣 등으로 변모하였다.

굽은 竹節굽과 낮고 투박한 垂直굽의 두 형태로 크게 구분되며, 굽바다의 유난히 넓은 越州窯風の 굽다리도 發見된다. 대부분은 굽內底를 가늘게 다져놓는 手法를 使用하였거나 손으로 그냥 눌러놓는 것이 있어 後述할 金谷里窯出土品으로 移行하기 直前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四個所에 胎土비짐을 놓고 포개어 燒成하여 窯址에 많은 胎土비짐이 散在해 있으며 모래받침도 併用되었다.

以上과 같이 忠孝洞 第一, 二號窯出土品(圖 2, 3)은 胎土·釉藥·器形·文樣·構圖 그리고 成形技法에 있어서 象嵌靑磁의 最末期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文樣·構圖에 있어서는 象嵌靑磁末流와 初期印花文粉靑의 混合型이라 할 수 있는 과도기적 要素를 겸비한 적절한 例



圖 2 忠孝洞第一號窯出土 象嵌青磁末流



圖 3 忠孝洞第二號窯出土 象嵌青磁末流

들이 많이 發見되어 매우 중요한 資料라 하겠다. 즉, 象嵌青磁의 胎土·
 釉藥 및 구도에 粉靑의 印花技法이 混合되고, 素材에 있어서도 象嵌青磁
 와 印花文粉靑에 나타나는 文樣이 여기서 同時에 나타나며, 고리青磁의
 器形과 朝鮮朝 陶磁의 특징인 口緣外反한 形態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樣相을 띤다. 특히, 器形의 側面에서 보면, 대접은 內底面이
 편평하다거나 內底圓心을 手法이 지속되지만, 「正陵」銘대접 以後 延
 徹적으로 均衡을 잃어 量感이 없고 不安定하며 醜陋어진 形態로 된다.
 製作時期로 말할 것 같으면, 外面의 構圖가 간략화되어 內面의 文樣
 및 器形과의 조화를 잃고 있지만, 內側面은 五段의 文樣帶로 구성되었
 고 印花技法 主潮이며 中心文樣이 「正陵」銘대접 보다 退化되어 나타남
 으로써 그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시기인 印花文粉靑의 初期直前단계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出土한 「司膳」銘대접의 樣式으로 보아 下限
 이 恭讓王元年(一三八九年)以前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② 이곳 出

9)과 一致한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군 가오리(圖 5)나 우이동出土片들은
 內側面이 뚜렷이 三段으로 구획되어 한층 정리된 면모를 지니지만, 우
 이동出土片(圖 6)에선 中心文樣의 地文을 이루는 덩굴진 唐草文이 雨點
 文으로 變하여 주목된다. 이와같은 雨點文의 出現은 象嵌青磁雲鶴文에
 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엔 雲文과 鶴文이 거의 同一한 크기
 로서 매우 사실적으로 表現되던 것이 점차 雲文의 축소와 多數化 경향
 과 함께 一三世紀中半期로 접어들면서 더욱 생략·退化의 과정을 거쳐 드
 디어는 雨點文③으로 變하여 象嵌青磁最末期에는 이곳 우이동 出土品과
 같이 地文을 이루는 唐草文이나 波濤文 등의 文樣들 또한 形式化·退化
 되어 雨點文으로 變形된다. 더욱기 外面의 中心文樣은 「正陵」銘대접의
 그것과 同一하나 윤곽선만 象嵌되었을 뿐, 內部에 小菊文이나 蓮唐草文
 이 전혀 施文되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두었으며(圖 7 左), 어떤 것은 內
 面의 連珠文帶 위 中心文樣 아래에 三圓文(세개의 圓이 삼각형으로 모

土品으로 생각되는 湖巖美術館所藏의 「司膳」銘印花文粉靑대
 접의 樣式을 考察해 볼 때 鮮初까지 내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二、기타지역出土品

上記의 忠孝洞 두窯址出土品의 性格과 악에 도움이 되며 또
 比較될만한 資料들로서 全國 여러 지역에서 發見된 象嵌青磁
 末流中 몇 군데 例를 들면, 忠南 鎭元군 광덕면 보산원리, 서울
 우이동(舊 경기도 崇仁面牛耳里),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加五里,
 그리고 慶北 高靈郡 沙島洞 民家 敷地 內 窯址 등에서 出土한 陶片
 들이 있다. 이들에 共通되는 특징은 中心文樣에 있어 細部的
 인 차이만 보일 뿐 모두 같은 구도에 같은 素材를 택하였다.
 各窯址別로 陶片을 살펴보면, 鎭元군 보산원리出土片에선 「正
 陵」銘青磁대접에 施文된 內側面의 蓮唐草文이 다소 頽落勢를
 보이며 黑白象嵌되었으며 內底圓주위의 蓮瓣文은 구획되지 않
 고 中心文樣과 混在한 점(圖 4) 등은 鮮初의 「恭安」銘대접(圖

인 것)이 1條 배치되어 中心文樣과 섞여 있다. 이와같이 구획선을 굵지 않고 보조文樣이 中心文樣과 混在한 상태라던가 中心文樣帶의 윤곽선만 그어놓은 소홀한 技法은 모두 象嵌靑磁의 最末期的 특징인 것이다.

다음에 高靈郡沙鳧洞民家窯址出土 靑磁대접片(圖8)을 보면 이것도 内外側面의 中心文樣으로 「正陵」銘대접과 同一한 文樣이 施文되었는데 훨씬 退化되어 이보다 時代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들 出土品들의 굽은 어떤 뚜렷한 定型이 없고 마무리가 깨끗치 못하고 지저분하다. 胎土비침을 내군데 사용하였고 모래받침을 併用하였 으며 포개어 燒成하였다.

이러한 굽의 형태와 함께 内外側面의 文樣·구도 또한 매우 간략화·退化되어 象嵌靑磁의 最末期的 모습을 지니며 鮮初의 「恭安」銘대접에 더 육가가와지고 있다. 따라서 製作年代는 고려王朝의 終末에 가까운 어



圖 4 경기도 천원군 광덕면 보산원리出土 象嵌靑磁末流 대접片



圖 5 경기도高陽郡崇仁面加五里出土 象嵌靑磁末流 대접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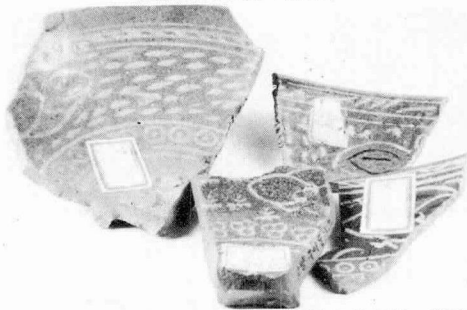


圖 6 서울우이동出土 象嵌靑磁末流 대접片 (舊경기도高陽郡崇仁面牛耳洞)



圖 7 左 우이동出土 象嵌靑磁대접片(裏面) 右 忠孝洞第二號窯出土 象嵌靑磁대접片(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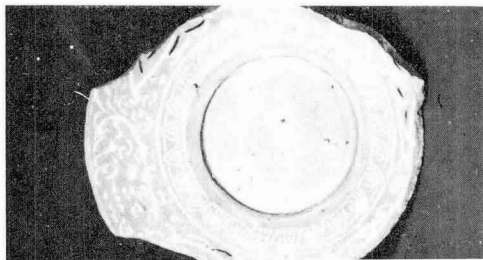


圖 8 高靈郡沙鳧洞出土 象嵌靑磁末流대접片

는 時期로부터 「恭安」銘대접 以前 즉 朝鮮極初까지의 朝鮮전국을 前後 한 혼란기(一三八九—一四一七年?)라고 推定해 보는 바이다. 이들 象嵌靑磁末流들에 對한 洞察은 一三世紀後半의 干支銘靑磁나 一三七二年頃 의 「正陵」銘靑磁대접의 文樣이 계속 退化·形式化一路를 걷게 되어 「恭安」銘대접에까지 이르르고있음을 알게 해 준다.

또 器形을 보아도, 대접의 경우 內底圓心을 擘手法은 지속되지만 量感이 없고 不安定한 過渡期的 形態인 것이다.

以上과 같이, 文樣·構圖·器形에 있어 혼란을 거듭했던 麗末 象嵌靑磁의 樣相은 鮮初의 「恭安」銘대접을 거쳐 「恭安府」銘대접에 와서야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만, 아직 胎土·釉藥·굽의 形態 등에 있어선 미숙한 단계에 있으며, 이것은 印花文靑의 發達과 함께 精製된다.

Ⅲ、印花文粉青沙器의 發達過程

一、有銘例의 樣式變遷

前章에서 印花文粉青의 起源을 象嵌青磁末流에 두고 그에 적합한 例들을 들어 分析하였다. 그 결과 象嵌青磁末流는 文樣·構圖面에서 初期의 印花文粉青과 연결됨을 언급하였는데, 이 章에서는 印花文粉青의 盛衰過程을 크게 三期로 나누어 編年資料인 有銘例들—주로 大楫·楮時類 墓誌, 胎壺—을 通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朝 粉青에 나타나는 銘文은 官司銘과 人名이 主種을 이루며, 地名과 기타 品質表示의 文字인 上, 甲, 大④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周知의 사실이다. 記銘手法은 ①象嵌手法 ②押印後 白土 嵌入한 一種의 印花手法 ③鐵砂로 쓴 것 ④陰刻手法의 네 종류이며 이중 象嵌手法에는 白土使用例가 압도적으로 많고 黑土는 그 사용례가 극히 드물뿐더러 모두 極初期에 속한다.

官司銘은, 太宗十七年 丁酉 四月條(一四一七年)에 의한 것 같으면, 器皿除弊의 일이 빈번하여 戶曹에서 啓한 內容⑤에 따라 出現하게 되었고, 地名과 합쳐진 例가 많다⑥. 官司銘은 官廳의 存續期間에 따라 또 地名의 使用期間에 따라⑦ 그릇의 製作年代를 確인할 수 있어 編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에 陶工名이 그릇에 記入되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릇의 質을 높이기 위해 器底面에 製造匠人의 이름을 써넣게 된 데서 비롯된다⑧. 以上の 官司銘과 陶工銘의 出現은 朝鮮朝 陶磁器에서 귀중한 編年 기준이 되고 있다.

가, 初期

麗末鮮初의 象嵌青磁末流에서 印花文粉青이 發生한데 이어 점차 朝鮮

朝 印花文의 要素가 強勢를 보이는 時期로서 鮮初의 「恭安府」銘대접이 그 첫 例라고 간주되며, 이것과 象嵌青磁末流와의 사이에 「恭安」銘粉青 象嵌文대접(圖9)이 놓이게 된다.

傳世의 「恭安」銘대접 한점과 「恭安府」銘대접 두점은 모두 釉胎에 雜物이 많고 陶器質에 가까워 初期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恭安」銘대접은 고려後期青磁대접의 器形과 같이 垂直口部를 갖춘 것으로 文樣과 構圖에 있어선 象嵌青磁末流의 그것보다 더욱 退化되었다. 空白의 內底圓 한쪽에 銘文이 白象嵌되었으며, 側斜面의 蓮瓣文과 側面의 文樣은 區劃線이 없이 混在하며 側面의 蓮唐草文은 매우 省略的·圖式的으로 되어 稚拙의 極에 달하고 있다. 唐草文사이로 보이는 蓮花줄기는 매우 굵고 굳데굳데 끊어졌으며 이와같이 極히 形式化된 모습은 加五里出土片(圖5)이나 高靈郡沙鳧洞出土陶片(圖8)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특히 口緣에서 멀리 떨어져 位置한 唐草文은 五條의 線사이에 點을 一列로 돌아가며 象嵌함으로써 극히 退化·變形된 모습이다. 外面은 胴部中間에 卍字文을 성의없게 象嵌하였는데 이것은 象嵌青磁末流에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다⑨. 이처럼 「恭安」銘대접의 文樣·構圖는 象嵌青磁末流와 直結되며 한편 印花文粉青으로 넘어오는 差리의 역할을 한다.

이 다음에 따르는 「恭安府」銘粉青印花文대접(圖10)들은 모두 윤두가 높고 口緣이 外反한 朝鮮陶磁系統이며 文樣도 象嵌青磁의 영향권을 벗어나 印花文粉青의 初期樣相을 띤다. 즉 內側面은 口緣으로부터 卍字文, 印花小菊文, 그리고 印花蓮瓣文이 三段으로 布置되어 象嵌文 一色の 「恭安」銘대접에 비해 한단계 발전상을 보였다. 外面은, 國博所藏의 경우, 「恭安」銘대접과 같이 胴部中間에 卍字文帶를 둘렀으며 다른 한점은 口緣部에 卍字文帶, 그 밑에 세계의 菊文, 다시 그 밑에 三條의 線이 있어 形式上 二段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두 「恭安府」銘대접의 釉色은 渾두색에 가깝고 一部 산화되어 褐色을 띠며 器面에 凹凸이 있다. 굽의 처리도 매우 소홀하여 굽바닥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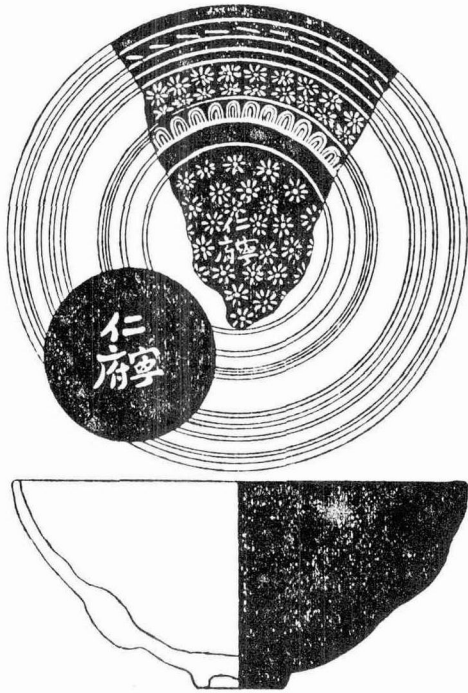


圖 10-1 「仁寧府」銘 粉青印花文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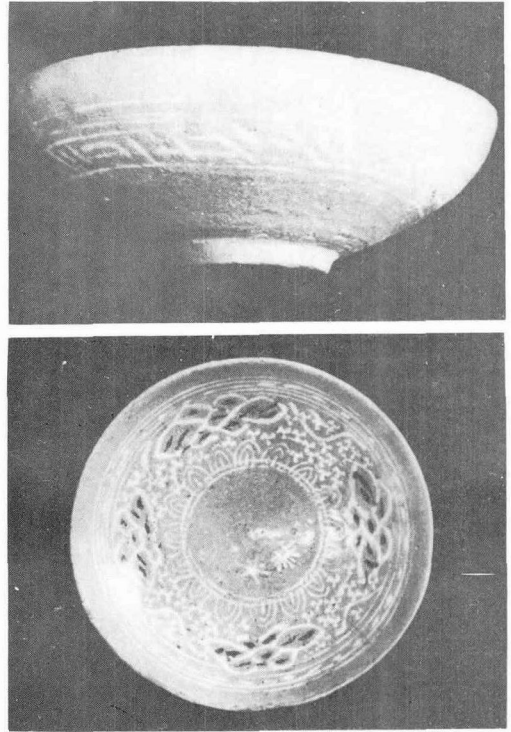


圖 9 「恭安」銘 粉青象嵌蓮唐草文대접



圖 10 「恭安府」銘 粉青印花文대접

른 굽內底에까지 굽은 모래가 잔뜩 붙어있다.
 이들 세 점의 年代는 官司銘의 기록이 보이는 一四一七年에서 恭安府가 仁寧府에 통합되는 一四二〇年¹⁰ 까지로 좁혀지게 되어 當時의 陶磁樣式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까 이 시기에는 施文技法上 象嵌文과 印花文이 併行되고있고 또 文樣構圖面에서도 象嵌靑磁와 印花文粉靑의 특색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器形面에선 高麗靑磁系와 朝鮮陶磁系가 共存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一四一七—一四二一年的 年代를 갖는 것으로 「仁寧府」銘 粉靑印花文대접이 있다¹¹. (圖10-1)
 이 대접은 內底圓 中央에 仁寧府의 세자를 삼각형구도로 白象嵌하였고 그 주위에는 小菊文을 가득 施文하여 內底圓 內部の 처리에 새로운樣相을 보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有銘例이다. 內側面은 口緣部로부터 唐草文、小菊文、蓮瓣文의 三段으로 區劃되었으며, 그중 口緣部の 唐草文은 「恭安」銘대접의 그것과 同一한 形式으로서 이러한 모습의 唐草文은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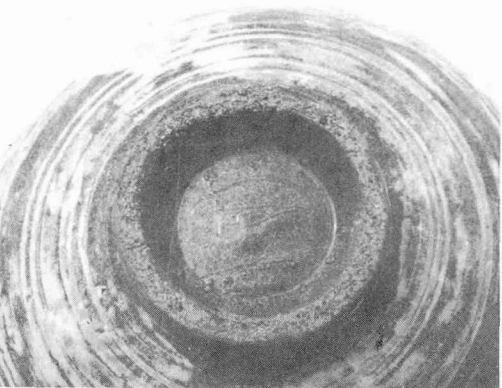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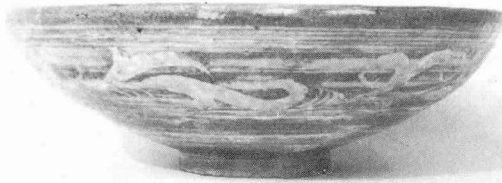
磁末流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內側面의 構圖는 前述의 「恭安府」銘대접과 同一하지만, 外面은 無文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器形은 口部가 垂直에 가깝게 彎曲한 靑磁系列이다.

이 時期의 또 다른 예는 湖巖所藏의 「司膳」銘靑粉印花文대접으로 이것은 黑象嵌銘文을 갖춘 몇점 안되는 朝鮮陶磁의 하나이다¹²⁾.

이 대접은 內側面이 四段으로 區劃되었으며 中心文樣은 印花小菊文을 地文으로 하고 中間中間에 抽象화된 草文을 배치하여 象嵌靑磁末流와 똑같은 形式을 취하고 있다. 器形은 內底圓心이 봐이고 은두가 높은 靑磁末期의 형태인데, 굽內底를 파놓은 手法이나 精製되지 않은 釉胎로 보아 一五世紀初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다음에, 印花와 面象嵌의 두 技法이 混合되었고 器形上 靑磁系와 朝鮮靑磁系의 두 類型을 갖춘 대접(圖11) 二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점은 앞의 예에 비해 釉胎가 精選되었으며 半磁器質의 灰色胎土에 灰靑釉가 굽內底까지 施釉되었다. 文樣은 內底中央에 菊花文을 하나



印花하고 그 주위에 從으로 단위를 이룬 密集小菊文을 두었으며, 側斜面에서부터 印花蓮瓣文、面象嵌葉文、短斜線으로 정리된 唐草文이 配置되어 靑粉대접의 盛期와도 같은 정리된 구성을 보이지만, 內底圓 內의 菊花文의 모습이나 그 가장자리에 蝶文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은 盛期以前の 특색이다. 外面은 口緣部에 唐草文、그 밑에 面象嵌葉文、다시 그 아래 여러줄의 線刻文을 둘러 內面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構圖 및 施文技法을 보여준다. 모두 垂直굽에 모래받침으로 燒成되었고, 口緣外 反한 대접은 굽內底에 「金」이라는 陶工의 姓이 稚拙하지만 활발한 筆致로 線刻되었다(圖11下). 그러므로 그 製作年代는 大개 匠名을 記入하도록 한 一四二一年以後 一四三八年頃의 「長興庫」銘대접 以前이 아닐까 推測되는 바이다.

대접에 이어 이 시기에 속하는 접시의 樣式을 살펴보면, 一四一七·一四一八年¹³⁾의 좁은 年代幅을 갖는 「敬承府」銘靑粉印花文접시를 들 수 있다. 이 접시에서 注目되는 점은 굽內底 全面을 다져놓은 成形手法으로

圖 11 靑粉象嵌印花文대접(下「金」銘)

이러한 굽의 形態는 象嵌靑磁末流로부터 많이 發見되고 있다.

胎壺로서 이 시기에 속하는 것에는 粉青沙器象嵌草花文四耳壺(圖 12)가 있다. 이 胎壺는 世宗大王의 만말인 貞昭公主의 胎壺中 內壺라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⑭ 貞昭公主의 生年인 太宗二年(一四二二年)과 卒年인 世宗六年(一四二四年)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全面은 크게 세개의 文樣帶로 區分되며 肩部로부터 口字文、자유분방한 구도의 草花文、蓮瓣文의 順으로 底部까지 배열되었다. 여기서 口字文과 胴部の 草花文 사이의 구획선 바로 밑에 一條의 印花小菊文이 등장하여 印花靑靑으로 一步前進하였으며, 印花文을 위주로 하는 時期以前的 모습을 시사해 준다.

精選된 硬質胎土와 얇게 施釉된 淡灰靑色의 釉, 그리고 竹節 굽 등은 上記의 文樣과 함께 이 壺의 年代를 一四二〇—二四年으로 좁혀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 發 展 期

이 時期는 印花靑靑이 큰 發展을 맞이하는 때로서 「長興庫」銘대접, 「興海仁壽府」銘대접, 그리고 「德寧府」銘대접이 있다. 「長興庫」銘靑靑印花文대접은 「正統三年」銘胎誌(一四三八年)와 함께 出土하여 編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資料이다. 印花靑靑은 이 대접에 이르러 비로소 外面이 三段의 文樣帶——口緣部の 唐草文、中心文樣帶、蓮瓣文——로 구획·정리되었고, 굽外面에도 口字文이 장식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象嵌靑磁의 要素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바, 四段으로 區劃된 內側面이라든지 「長興庫」의 文字 外에 아무 文樣도 없는 內底圓 內部の 처리手法, 그리고 內底圓 주위에 施文된 如意頭文이 구획선 없이 바로 中心文樣과 混在하는 點과 小菊文을 地文으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커다란 菊花文을 배치한 中心文樣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中心文樣帶 위에는 一條의 小菊文帶와 唐草文帶가 口緣까지 布置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적인 要素에도 불구하고 印花技法의 使用, 넓어진 中心文樣帶, 白土를 많이 사용한 施文手法, 그리고 굽外面의 文樣과 三段의

로 정리된 外側面 등은 朝鮮朝 印花靑靑으로서의 특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思料된다. 이러한 「長興庫」銘대접을 전환점으로 하여 以後의 印花靑靑대접은 外側面에서 그 洗練美를 더해가게 되며, 湖巖所藏의 「興海仁壽府」銘靑靑印花文대접을 거쳐 「德寧府」銘印花靑靑대접에서 완전히 安定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興海仁壽」銘대접 ⑮는 內底圓 內에 五字의 銘文과 함께 여백이 稚拙한 菊花文과 蝶文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現在까지 알려진 印花靑靑대접들 중에서 菊花文과 蝶文이 同時에 內底圓 內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번째가 아닌가 한다. 또 內外側面은 三段 文樣帶로 區劃·정리되었고 中心文樣도 印花小菊文 一色으로 앞서의 「長興庫」銘대접보다는 훨씬 진전된 樣式을 보이고 있다. 口緣이 外反한 朝鮮陶磁系列의 器形에 灰白色의 胎土와 灰靑釉 그리고 口窩이 작은 굽의 成形 등 또한 精製된 모습이며 年代는 一四三八—一四五〇年頃으로 推定된 바 있다 ⑯.

德寧府는 一四五五年에서 五七年까지 存續했던 관청으로 ⑰, 이 銘文의 대접 ⑱ 또한 그 年代를 갖게 되어 一五세기 中葉의 陶磁樣式과 약 적절한 例이다. 「德寧府」銘대접(圖 13)은 器形上 側面이 완만한 曲線을 이루는 고려靑磁系列로서 內外面의 文樣帶는 각각 四段·三段으로 區劃되어 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內面의 文樣은 內底圓 內의 中央에 菊花文을 두고 그 주위에 密集小菊文을 가득 印花했으며, 內底圓 外部에 蓮瓣文帶、側面에 從으로 단위를 이룬 미세한 密集小菊文、 그리고 口部に 唐草文帶를 각각 施文하였다. 外面은 口緣部에서부터 口字文、 미세한 密集小菊文、 一條의 菊文을 차례로 底部까지 配置하였다.

이와 같이 內外面에 나타나는 密集小菊文이나 中心文樣帶의 幅이 넓어진 點 등은 보다 盛期에 다가선 특징이지만, 器面의 凹凸과 군데군데 남아있는 白土, 一定치 않은 구획선 등과 소홀히 작은 竹節 굽 등은 「德寧府」銘대접의 製作時期인 一五세기 中葉에는 印花靑靑이 아직 盛期에 進入하지 않았음을 明示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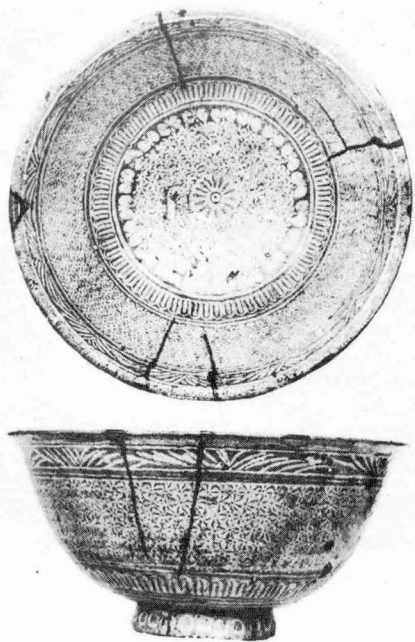


圖 14 「內瞻」銘 粉青印花文대접



圖 12 貞昭公主墓出土 粉青象嵌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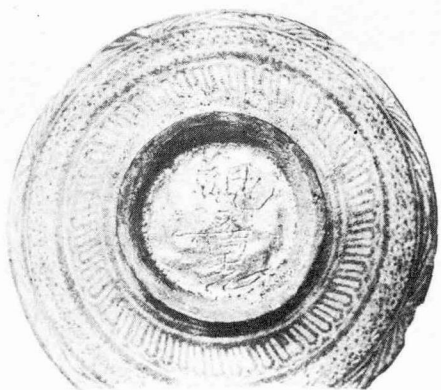


圖 15 「觀童心」銘 粉青印花文접시



圖 13 「德寧府」銘 粉青印花文대접

이 時期에 속하는 墓誌로서 「景泰元年」銘墓誌、「正統十四年銘墓誌」^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象嵌技法에 依해 銘文을 나타냈으며, 燻造상대가 좋은 「正統十四年銘墓誌」(一四五二年)의 경우 灰青色釉를 얇게 입혔다. 「景泰元年」銘墓誌(一四五〇年)의 裏面에는

公州東村後金生造作爲白乎飛石
이라는 銘文이 있는 바, 世宗三年(一四二一年) 製造匠人의 이름을 써 넣기 시작한 以來 이때까지 「金生」이라는 匠人名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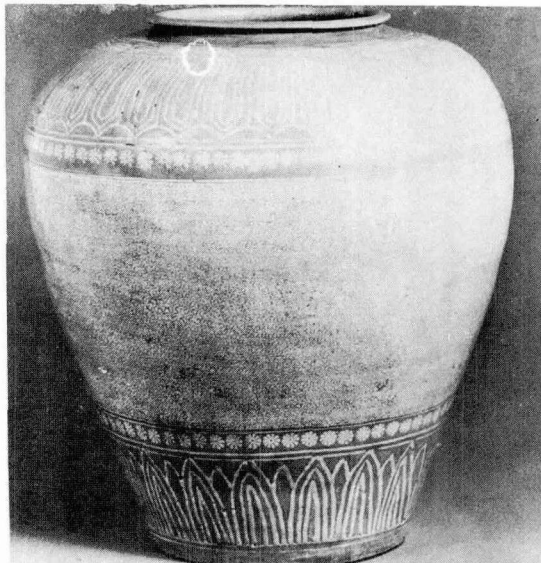


圖 16 月山君 粉青印花文胎壺

다, 盛 期

이에 속하는 編年資料로 「內瞻」銘대접, 「觀童心」銘접시 그리고 月山君의 胎壺가 있다.

「內瞻」銘대접(圖 14)은 많은 「內瞻」銘粉靑 中 매우 진보된 樣式을 갖추고 있다. 口緣이 外反되고 口緣이 높은 當당한 器形과 더불어 內面 四段·外面三段의 文樣帶는 器面에 적절히 배치되었으나 外面은 다소 소홀히 처리된 感을 준다. 內底圓은 넓으며 內外側面의 中心文樣帶에는 小菊文이 백백이 印花되었고 口外面에는 金谷里窯 특유의 圓文이 一定 간격으로 施文되었다. 外面에서 分析하자면, 金谷里窯出土品임이 분명하며, 口緣部의 넓은 唐草文帶와 底部의 불필요한 牙백, 다소 정리되지 않은 一面을 보이는 外面처리 등으로 金谷里窯前期에서도 頽落勢를 보이기 시작하는 中期에 가까워진 시기라고 간주된다.

「內瞻」銘은 內底圓 內 中央에 약간 비껴서 印花手法으로 記銘되었



圖 17 粉青印花文壺片

文의 筆體와 손가락으로 누른 口內底 등은 金谷里窯產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世祖의 孫인 月山君의 粉靑沙器印花文胎壺(圖 16)는 天順六年(一四六二年)에 매장되었다고 傳해지며²⁰, 앞의 두 有銘例와 함께 틀림없는 金谷里窯出土品이라고 생각되는 資料이다.

器形은 典型的인 鮮初白磁壺의 形態로 口部가 낮게 外反하고 肩部는 膨滿하여 當당한 感을 준다. 文樣은 肩部에서부터 雷文、蓮瓣文、一條의 小菊文이 印花·密集되었으며 底部에는 蓮瓣文이 象嵌되어 全面에 걸쳐 五段의 文樣帶가 질서정연하게 區劃·施文되었다. 이와같이 安配된 文樣들과 器形이 이루는 조화는 매우 洗練된 맛을 풍긴다. 이 胎壺와 比較되는 유사한 壺片(圖 17)이 本金谷里窯에서 出土되어窯의 造營時期를 밝히는 데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다²².

以上の 有銘例들을 通하여 時期別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 「內瞻」銘과 같이 年代폭이 넓은 官司銘을 가진 陶磁器의 編年에 本金谷里窯出土品의 종합분석은 결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

다음에 「觀童心」銘粉靑印花文접시(圖 15)는 文樣·構圖가 더욱 정돈되고 기형 또한 安定感과 洗練美를 더하며, 口內底에 「觀童心」의 銘文을 線刻한 것까지 모두 盛期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즉, 菊花、小菊、蝶文으로 飾 짜여진 內底圓과 밀집된 印花小菊文、內面四段·外面三段의 文樣帶、약간 벌어진 口內底와 그 外面에 印花된 圓文 등이 그러하며, 時代的으로 世祖朝 末頃으로 推定된다. 銘

文樣面에서 時期的으로 민감한 變化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內底圓 內的 文樣이다. 즉, 「恭安」 「恭安府」銘대접에선 空白으로 남겨지던 內底圓이 「仁寧府」銘대접에선 小菊이 드문드문 施文되었고 「興海仁壽府」銘대접에서 비로소 蝶文과 菊文이 함께 나타나고 「德寧府」銘대접에 이르러 內底圓 中央에 菊花 하나가 자리잡고 그 주위에 小菊文이 密集印花되는 印花粉靑대접의 기본양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仁壽府」銘의 경우 仁壽府의 存續기간이 긴 결과로 인해 陶磁樣式은 매우 多樣한데, 一五세기中葉의 「德寧府」銘대접의 樣式을 기준으로 하여 時代區分을 할 수 있는 바, 內底圓이 印花小菊文으로 백백이 施文되고 中央에 커다란 菊花文이 位置한 形式은 「德寧府」銘以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以前으로 第一次의 區分을 試圖할 수 있다.

다음에 印花文 위에 입혀진 白土의 농도와 器面의 정리상태를 보면, 印花文初期에는 白土를 얇게 입힌 후 깨끗이 훑어내지 않아서 근데 근데 白土가 저저분하게 남아있을 뿐더러 器面엔 凹凸이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一五세기中葉의 「德寧府」銘대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白土는 진하지만 文樣 外의 부분은 말끔히 훑어내어 印花文이 精製되지만, 쇠되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白土는 얇어지고 또 거의 훑어내지 않아서 印花文과 귀얄文이 混在하게 된다. 이처럼 「德寧府」銘대접은 外면에서 전환기적인 性格을 強하게 띤다. 「德寧府」銘대접以後로 맞게 되는 印花文粉靑의 盛期作品은 後述할 金谷里窯前期의 出土品이 그 좋은 예이며, 이미 「內瞻」銘대접과 「觀童心」銘접시 그리고 月山君의 胎壺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 章에서 金谷里窯前期에서 後期에 이르기까지 樣式考察을 통해 印花文粉靑의 盛衰過程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二、忠孝洞金谷里窯에서의 樣相(印花文粉靑의 盛期에서 衰退期까지)

가, 金谷里窯의 地理的 環境과 歷史的 背景

全南 光州市 忠孝洞 金谷里窯는 에로부터 光州의 鎭山이었던 無等山

麓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一帶의 山麓에는 一群의 陶窯址가 散在해 있어 예전엔 光州가마, 無等山가마, 石谷面가마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중 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忠孝洞 第一, 二號窯와 안골窯 등이 포함된다. 現在 金谷里窯는 史蹟 一四一號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나무숲이 울창하다.

光州에 관한 建置沿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23, 光州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건원때부터라고 한다. 또 世宗實錄地理志에는, 磁器所一, 在郡東梨帖, 陶器所一, 在郡北이라고 되어 있고, 여지승람의 光山縣에는 「縣東 石保里에서 陶磁器를 生産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된 梨帖과 石保里의 現在名稱은 알 수 없지만, 여지승람에 소개된 石保里가 與地圖書의 石保面으로 24 해서 일제시대에 불리웠던 石谷面가마라는 명칭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內容은 金谷里窯出土品의 編年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前章에서 언급하였던 「觀童心」銘접시(世祖朝)나 月山君의 胎壺(二四六二年) 그리고 本窯出土의 「末四」銘대접(一四七五年)과 「丁閔二」銘陶片(一四七七年) 등으로 곧 窯의 造營時期를 밝힐 수 있는 바, 世祖朝에서 成宗初까지의 약 二〇여년간 운영되었던 것으로 믿어지며, 이러한 期間은 가마운영상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인 煤값이 소진하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어느정도 부합되고 있다 25.

나, 金谷里窯出土 粉靑概觀

金谷里窯出土品은 象嵌靑磁로부터 各種粉靑과 白磁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며 이중 印花粉靑이 主流를 이룬다. 器種別로도 대접·접시·壺·梅瓶·장군·扁瓶·祭器·陶硯·馬上杯 기타 陶枕·잡발 등이 發見되었는데 모두 破片으로서 完形은 하나도 없다.

層位別로는 最下層에서부터 精巧한 印花文粉靑과 靑磁, 그 위에는 퇴화된 印花文粉靑, 귀얄文粉靑, 白磁의 順으로 出土하여 製作時期의 先後關係를 알려 주고 있으며 最下層의 印花文粉靑은 뛰어난 제작手法으로

文樣은 器形과 調和를 이루며 細小化되어 全面에 靑靑하게 施文되었다. 細部的으로는 口緣部の 唐草文帶가 좁아지고 따라서 唐草文 자체도 짧아졌으며 單位別로 施文되었다. 그리고 側面的 中心文樣帶와 內底圓도 넓어져서 小菊文은 五、六條以上 施文되었다. 구획선은 二條씩 一定하며 器面은 매끈하게 정돈되었다. 銘文은 宗류가 많고 陶工名 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記銘位置는 모두 굽內底로서 線刻되었다. 이러한 銘文資料는, 前章에서 소개되었던 「景泰元年」 銘墓誌 裏面に 陶工名이 表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一四二一年 匠名을 記入하도록 한 以來 그러한 命을 받들어 한窯에서 多量生産한 좋은 例證이 되고 있다.

굽은 모두 굽바다의 角진 垂直 굽이며 약간 벌어진 것도 있으며 底徑은 넓어졌다. 굽內底는 편편하게 손가락으로 눌렀으며 다시 깨끗이 짝아 단정한 모습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모래받침에 匣鉢을 사용하여 단독소성하였다.

조사한 陶片은 一〇〇여점에 이르며, I式이라고 구도에 따라 다시



圖 18 I-a 式 靑磁系「丹夫」銘 粉靑印花文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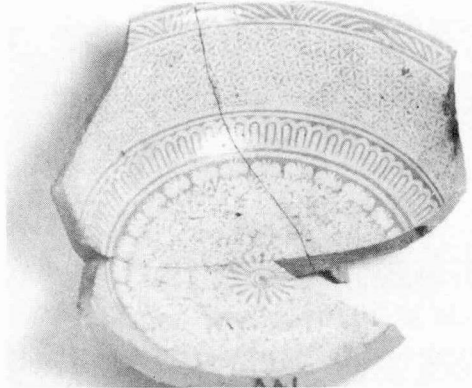


圖 19 I-a 式 口緣外反 粉靑印花文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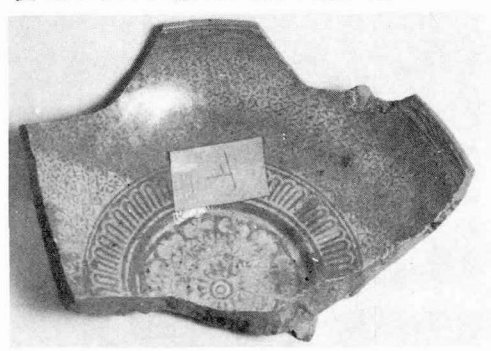


圖 20 「上」銘 粉靑印花文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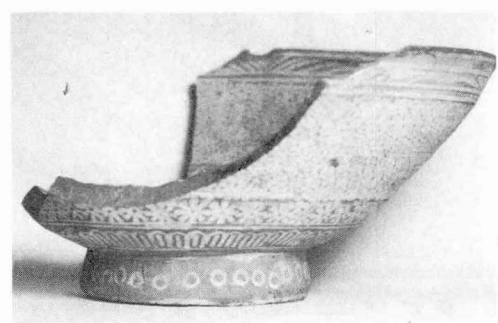


圖 21 I-a 式 直口式 粉靑印花文대접

a, b 로 분류하였다.

I-a 式에 속하는 대접들은 文樣과 器形의 完備한 調和를 이루며 모든面에서 安定되어 있다. 특징이라면, 外底部の 蓮瓣文帶 위에 一條의 小菊文이 삽입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 小菊의 크기가 中心文樣의 小菊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의 두 類型으로 區分된다. 小菊의 大小에 따른 차이점을 제외하면 이 두 유형은 同一한 構圖와 技法으로 제작되었으며 內外面이 四段의 文樣帶로 區劃되었다.

I-b 式 I-a 式의 完전했던 形式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外底部の 蓮瓣文帶 위에 있던 一條의 小菊文帶가 사라져서 內面四段·外面三段으로 구획되며, 이로 인해 外面의 活用度는 줄어들어 各文樣帶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同時에 區劃線도 三―四條로 늘어나서 部分的인 變化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점씩 例를 들어가며 再檢討하기로 한다.

例一 「丹夫」銘粉靑印花文대접(圖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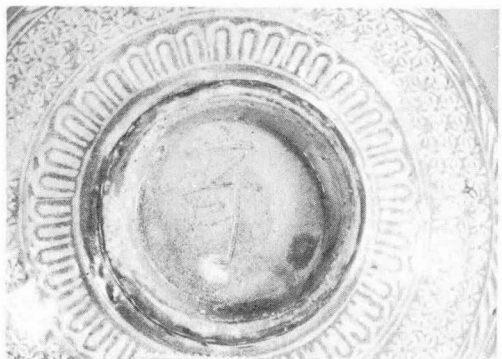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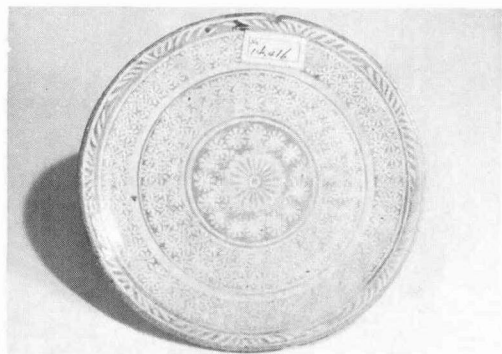


圖 22 B 式「奇」銘 粉青印花文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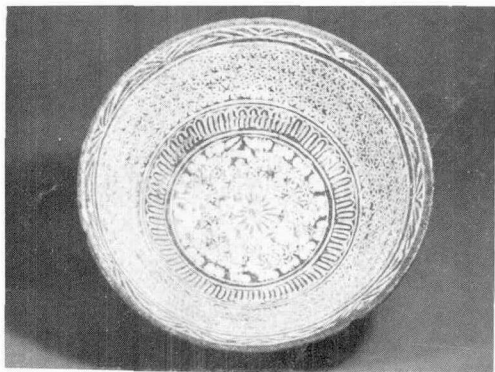


圖 23 II-a 式 口緣外反「公」「未四」銘 粉青印花文대접

現高五·四 cm 口徑一九·五 cm 底徑七 cm (推定)

I-a 式, 火度미달로 인해 硬質土器와 같은 상태이다. 細小화된 文樣이 口緣에서부터 굽 주위까지 全面을 충분히 活用하여 襷, 襷이 施文되었고, 外底의 小菊은 中心文樣의 그것과 같은 크기이다. 器面의 정리는 말끔하여 印花文이 뚜렷하다. 器形은 側下部가 완만한 曲線을 이루지만 口部는 垂直으로 올라가 예리한 感覺을 준다. 굽內底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질서정연하게 나타나며 匠人名인 「爲夫」의 두자가 굽內底中央에 세로로 線刻되었다. 外面 中心文樣帶 밑에 一條의 區劃線이 小菊 위로 지나가고 있어 소홀한 一面이 엿보이지만, 精選된 硬質의 胎土와 함께 全體的으로 짜임새있는 印花文極盛期の 作品이다.

例二) 粉青印花文대접(圖 19)

高九 cm 口徑二一·四 cm 底徑八 cm

I-a 式, 胎土와 釉藥이 모두 精選되어 밝은 灰色을 띠며, 器形上例一과 쌍을 이루는 口緣外反한 朝鮮陶磁系列이다.

例三) 「上」銘粉青印花文대접(圖 20)

高七·七 cm 口徑一九·六 cm 底徑八·二 cm

I-a 式, 內底圓心이 파이고 同時에 垂直口部를 갖춘 器形이며, 襷는 약간 青色을 머금은 淡灰色이고 胎土 또한 精選된 淡灰色이다. 襷胎와 文樣·構圖 등은 最盛期の 特徵을 여실히 보여준다. 굽內底의 中央에 上品임을 의미하는 듯 「上」字를 굽게 陰刻하였다.

例四) 「无」銘印花文粉青대접(圖 21)

高七·七 cm 口徑二〇 cm 底徑七·七 cm

I-a 式, 火度미달의 硬質土器상태· 內底圓心이 파인 直口式대접의 좋은 例로서 굽內底는 손가락으로 편편히 누른 後 다시 깨끗이 깎아서 典型的인 金谷里窯出土 盛期の 面貌를 갖추고 있다. 굽內底 한쪽에 치우쳐서 「无」라고 線刻하였다.

以外에 銘文資料로는 「末山」銘、「徐」銘 등이 있으며, 朝鮮陶磁系로는 「巨」銘、「朴文」銘、「目」銘 등이 있으며 器形上 두 樣式이 항상 雙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胎土가 精選된 유형의 접시는 內底우묵한 것, 편편하고 납작한 것, 그리고 전접시의 세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중 內底面이 편편한 접시와 전접시가 大種을 이룬다.

形態에 관계없이 접시의 全體의인 분류는 內外面의 구도에 따라 A, B, B'로 구분하였으며, A는 內外 各各 四段의 文樣帶로 구성되고, B, B'는 內面四段·外面三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大形의 접시가 많으며 文樣은 精緻하고 器面의 정리도 훌륭하여 文樣과 기형은 거의 完備할 정도의 調和를 이루고 있다. 또 內底面과 側面에 걸친 第二段과 第三段 文樣帶 사이의 구획선이 굵게 白象嵌되는 手法이 器形에 관계없이 이 유형의 例들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꼽혀진다(圖 21). 이러한 특징은 胎土·釉藥에 雜物이 混入되어 印花文粉靑의 頽落勢가 현저해지면 서 사라지게 된다.

(2) 胎土에 雜物이 混入된 例

이 유형에 속하는 대접의 器形은,

〔高麗靑磁系—側面은 彎曲되고 口部가 다소 벌어진 것(은두가 낮다)〕

朝鮮陶磁系—口緣이 外反하고 胴部가 밋밋한 曲線을 이루며 홀쭉한 直口式—一점뿐으로 앞에서 論하였던 直口式과는 달리 側面이 굴

여 全體의 量感이 결여된 것(은두가 높다)

으로 細分된다.

施文技法은 소홀하여져서 外面의 印花文은 또렷하지 않고 그 위에 귀 알로 슬쩍 입혀 놓은 白土마저 文樣外의 부분을 깨끗이 훑어내지 않아 더욱 지저분한 感이 들며 白土가 印花文粉靑이 退化하고 귀알文 주류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놓여 있다 하겠다. 文樣의 布置 또한 器面을 적

절히 利用하지 못하여 器形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器面의 凹凸이 심하다.

銘文에 있어서 특징이라면, 內底中央에 菊花文대신 光(圖 24), 〔光別〕, 〔光公(圖 29)〕, 〔光上〕, 〔光二〕가 印花技法으로 記銘된 점이다. 이와 같은 記銘位置는 鮮初의 有銘例와 同一한데, 金谷里塞出土品에서 보듯이 內底를 記銘부위로 삼았던 것이 印花文粉靑의 盛期手法이며, 盛期를 前後로 해서는 위에 언급된 것처럼 대체로 內底中央을 記銘部位로 삼고 있다.

굽의 成形은 매우 소홀하여 굽다리가 벌어지거나 곧게 내려가면서 굽바닥이나 內底가 찌그러지거나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형태를 취한다. 간혹 죽절굽도 發見되며 內底를 다져 놓은 例도 꽤 많다. 주로 胎土 比질을 사용하여 포개어 燻造하였으며 간혹 모래받침도 併用하였다.

조사된 대접의 陶片은 一〇〇점이 조금 못되며, 文樣·構圖 및 기타 的手法에 따라 Ⅱ, Ⅲ式으로 區分하였다.

Ⅱ·Ⅰ式이 完전한 盛期의 印花文粉靑인데 비해, Ⅱ式은 安定勢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여러面에서 形式化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內面四段·外面三段의 文樣帶는 不安定한 구획이 보이며 各 文樣帶間의 구획선의 수도 二—三條로 一定치 않다. 唐草文帶가 넓어지고 中心文樣帶는 좁아져서 各 文樣帶의 폭이 비슷해지고, 文樣 자체는 매우 소홀하여져서 唐草文은 거칠게 멀리 뻗어나가고 主文樣인 小菊文도 성글게 施文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內面보다도 外面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形式化의 정도에 따라 Ⅱ-a, Ⅱ-b, Ⅱ-c로 細分하였다.

Ⅱ-a·Ⅰ式의 類型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며 다소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상태는 印花文 위에 白土귀알칠을 얹게 하여 文樣에 白土嵌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의 陰刻文과 같은 文樣으로 化했기 때문이다. Ⅱ-a의 대접중에 소위 靑磁系는 外側의 中心文樣帶와 蓮瓣文帶 사이에 一條의 小菊文帶가 삽입되어 內外面이 각각 四段 구도를 이루어 例外的이다.

II-b.. 內外側面の小菊文은 三―四條로 줄어들었지만, 內面の文樣은 아직 安定勢를 잃지 않고 있는 反面, 外面의 구도는 다소 흐트러져서 唐草文帶는 口緣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또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文樣帶는 中間에 물려있고 底部의 蓮瓣文帶는 굽과의 사이에 여백을 두고 있으며 그곳에 二―三條의 線이 돌려있다(圖 24).

II-c.. II-b式에서의 退化現象이 더욱 심해져서 器形이나 施文技法, 構圖, 胎土 및 釉藥에 있어 印花文粉靑의 末流的인 樣相을 띤다. 靑磁系대접의 경우는 口部가 벌어지는 경향이 더욱 심하여 重直인 형태는 사라지고, 口緣外反한 대접의 경우는 胴部에 量感이 현저히 줄어들고 安定感이 없다. 특히 이 경우 外面의 構圖가 더욱 뚜렷이 中間부위에 물리게 되었고, 또 요소요소에 白土가 진하게 남아있다.

例七) 「公」未四銘粉靑印花文대접(圖 23)

高 八・一一八・六 cm 口徑 一八・七―一九・三 cm 底徑 七・二 cm

II-a式 口緣은 外反하고 胴部는 날선하며 前述한 바와 같이 外面의



圖 24 II-b式 口緣外反 光銘 粉靑印花文대접

施文技法은 內面に 비해 뒤떨어진다. 그러한 예로 口緣部나 굽주위 그리고 胴部 군데군데에 白土가 많이 남아있는 點과 口緣에서 떨어져서 唐草文帶가 布置한 點, 그리고 굽 주위의 여백을 凹凸이 심한 線刻文 등으로 메꾼 點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印花文 위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白土귀얄文은 製作技法의 退化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現象은 귀얄文 주위의 粉靑으로의 移行過程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中間部位로 물린 外面의 構圖와 정리되지 않은 區劃線 등은 衰退一路에 접어든 印花文粉靑의 모습이다. 굽內底 한쪽에 치우쳐서 「未四」의 두字를 세로로 刻하였으며 「公」字는 內底圓內의 蝶文 사이에 白象嵌되어 特異한 記銘位置를 보여준다. 「未四」는 乙未年四月의 意味로 一四七五年에 해당된다고 믿어진다.

III.. 器形・構圖・文樣 및 製作技法에 있어서 완전히 退化된 유형이다. 器形은 전혀 量感이 없고 器面의 정리가 不充分함은 말할 나위없다. 外



圖 25 III式 口緣外反 粉靑印花文대접

面은 口緣部の 唐草文帶 아래 一—二條의 小菊文이 매우 희미하게 印花 되었고 以下の 여백은 線刻文으로 메꾸어졌다. 白土의 使用 또한 고르지 않아 內面一部에 몰려 있는가 하면 外面은 아주 희미하다. 口外面에 圓文이 없는 것도 가끔 發見되는데 이것 역시 技法의 退行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圖 25).

접시는 內底가 우묵한 것이 大種을 이루며, 內面이 편편한 형태도一部 보인다. 전체적으로 技法의 低質化와 함께 內底 편편하고 남작한 접시의 한 分派인 內底우묵한 접시는 대체로 稚拙한 技法으로 製作되었다. 口外面의 構圖에 따라 C, D, D'로 분류하였으며, C는 內面四段·外面二段, D는 內面三段·外面二段이다. 그리고 완전히 頽落한 유형인 D'는 內面은 三段이지만, 外面은 더욱 생략·形式化되어 口緣部에 唐草文帶만 두었을 뿐 그 以下는 線刻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外面의 手法은 대접의 Ⅲ式과 一致하며 「光」銘이 특히 많다.

以上 胎土 精選된 例들과 그렇지 않은 例들을 比較해 본 바에 依하면 前者는 여러面에서 매우 進步된 樣相을 띠어 前章에서의 編年資料와 연결짓는데 一五세기 中葉의 「德寧府」銘대접以後부터 一四六二年 月山君胎壺의 製作時期를 전후한 期間이라고 믿어지며, 後者는 一四六二年頃을 지나 盛期의 粉靑이 退潮를 보일 무렵인 一四七五年頃以後라고 推定된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公」「未四」銘대접의 年代인 一四七五年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더우기 發掘時의 記錄에 依하면, 精製된 것이 下層에서, 雜物混入된 것이 上層에서 出土되어 兩者의 先後관계는 더욱 분명하다.

라, 金谷里窯出土 귀얄文粉靑

金谷里窯出土 귀얄文粉靑은 釉胎에 雜物이 많이 混入되어 胎土는 거친 陶器質의 질은 취색을 띠며 釉色은 灰色이다. 이와 같은 釉胎는 印花文粉靑 Ⅱ·Ⅲ式과 同一하며 굽의 成形技法 또한 그것과 같다. 白土는 全面에 골고루 입혀졌으나 얇은 편이며 계동산窯出土品과 같은 生動感은

없다.

器形面에서 보면,

高麗青磁系—側面이 彎曲한 것(운두가 낮다)	—無文
朝鮮陶磁系—口緣이 外反한 것(운두가 높다)	—無文
	—一條의 陰刻 內底圓

로 區分되어 印花文粉靑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들은 굽의 형태에 있어서 그 手法을 달리하고 있는데, 高麗青磁系의 器形을 갖춘 대접들은 印花文粉靑 Ⅱ·Ⅲ式에서와 같이 투박하고 소홀히 짚은 굽다리와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눌러놓은 굽內底의 成形手法을 보여준다(圖 26). 한편 朝鮮陶磁系대접의 굽은 印花文粉靑 Ⅱ·Ⅲ式의 소홀히 成形한 굽과 투박하지만 內傾한 굽다리에 印花文粉靑 Ⅱ·Ⅲ式의 굽內底 手法이 併合된 두 形態로 區分된다. 여기서 後式은 典型的인 白磁의 굽다리에 末期 印花文粉靑의 굽內底 手法이 混合되어 粉靑과 白磁間의 過渡期的인 類型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귀얄文粉靑의 製作技法을 印花文粉靑과 比較하면, 귀얄文粉靑은 印花文을 생략하고 그 바탕분양인 귀얄분만이 남은 상태로서 形式的이고 退化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어 小山富士夫氏의 견해와 같이, 같은窯에서 만들었음지라도 印花文粉靑은 秀作이고 귀얄文粉靑은 주로 一般庶民의 수요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27).

마, 印花·귀얄文粉靑의 起源과 波及에 관한 문제

金谷里窯와 관련된 山田萬吉郎氏의 全羅道地方窯蹟의 現地踏査에 依한 理論이 있다. 氏에 依하면, 印花文粉靑과 귀얄文粉靑은 각기 다른 系統이며, 前者는 象嵌青磁系의 硬質인데 反해 後者는 粉粧文에서 나온 전혀 別個의 軟質陶器라고 전제하고 있다(28). 그러므로 그 出土地도 각각 다르며(29) 두 系統은 北上하면서 합쳐진다고 한다(30). 즉 全南地方에서 別個의窯이던 印花·귀얄의 兩系統粉靑은 北上하면서 混合된다는

소위 北進混和說과 더우기 兩系統이 併合되는 시기가 粉靑의 最盛期라고 함에 ㉓ 다소의 수정이 要求되고 있다.

첫째, 印花文系와 귀얄文系가 同一系가 아니라는 點 ㉔에 대해, 本窯出土品을 考察한 바에 依하면, 印花文後期는 귀얄文과 胎土·釉藥 그리고 器形 및 글의 成形手法에 있어서 同一함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귀얄文은 印花文과 同一系이며 衰退한 印花文에서 派生되었다고 믿어진다.

둘째, 全南地方에선 印花文과 귀얄文이 자기 그窯을 달리하고 있다 ㉕ 一般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山田氏의 결론은 表面採集에 依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發掘을 통한 調査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一例로 金谷里窯을 歸얄文이 전혀 없는 印花文粉靑의窯로 단정지어 소개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처음 朝鮮의 西南端인 務安地方에서 印花文粉靑과 귀얄文粉靑의 두系統으로부터 시작하여 北으로 경상도, 충청도 및 전라도 一帶의 철저히 調査 後에나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 現在로선 그와 같은 결론을 맺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氏의 見解와 같이 兩系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北進하면서 同時에 混和되는 경로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粉靑沙器樣相의 變化인 것으로 판단된다. 實例로서, 本窯 中期以後로 나타나는 印花文과 귀얄文이 混和된 樣式, 말하자면 印花文 위에 귀얄文을 첨가하여 印花文이 희미해진 것이라는지(圖 25), 內面은 印花文이고 外面은 귀얄文인 것, 또는 그 反對의 施文, 그리고 外面에 印花文과 귀얄文이 번갈아 施文된 것(圖 27) 등은 印花文 末期에서 귀얄文 主流의 時期로 넘어가면서 어떤 粉靑窯에서나 나타나는現象이라고 생각된다.

네째, 氏는 계속하여 兩系統이 合併되어 大發達을 이루는 粉靑全盛時代를 맞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印花文 위에 귀얄文이 저절로 첨가되는 樣相은 印花文으로서는 衰退期에 접어든 것이다.

이처럼 山田氏의 몇 가지 이론은 약간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 수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더욱 많은 地域의 調査와 發掘이 眞實히 要求되는 바이다.

마, 銘文과 金谷里窯의 性格

銘文의 대부분은 印花文粉靑대 접·접시類에 나타나고 있으며 白磁에선 몇 예만이 발견될 뿐이다. 銘文의 內容과 종류 그리고 位置는 印花文粉靑의 盛期에서 末期로 가면서 그 판도가 달라진다. 즉 極盛期에는 陶工銘 ㉖ 이 대다수며 굽內底에 線刻되다가 衰退期에 접어들면서 地名·品質 ㉗ 그리고 製作年月의 表示가 主種을 이루는데 內底 中央에 印花手法으로 記銘되거나 ㉘ 굽內底에 線刻된 手法 ㉙ 도 併行되었다. 따라서 全體的으로 볼 때, I式과 II式에 集中的으로 銘文이 나타나고, III式에선 內底中央에 굽內底에 一四一을 線刻한 대접이 一하게 發見되어지고 있다. 以上과 같은 銘文의 內容과 記銘位置는 世宗 三年(一四二二年) 匠名을 器底에 記入하라는 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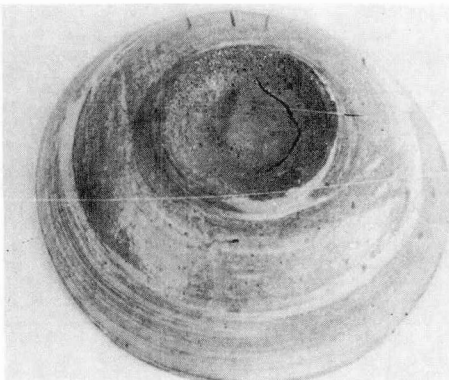


圖 26 靑磁系 粉靑귀얄文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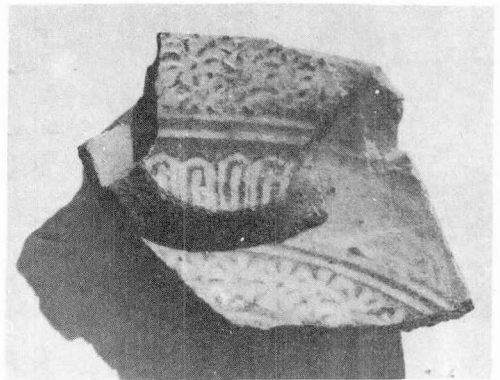


圖 27 粉靑印花귀얄文 陶片



圖 31 「丁三公」銘 粉青印花文 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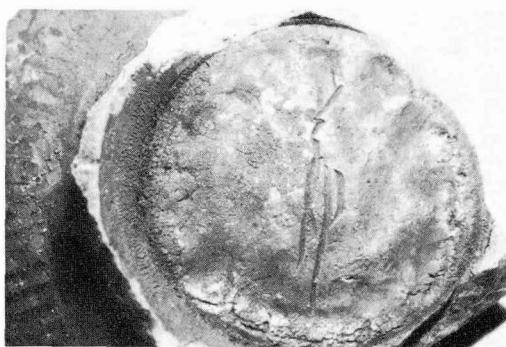


圖 28 「鄭」銘 粉青印花文 陶片



圖 32 「丁四」銘 粉青印花文 陶片



圖 29 「光公」銘 粉青印花文 陶片



圖 33 青磁象嵌雲鶴文油瓶



圖 30 「丁閔二」銘粉青印花文 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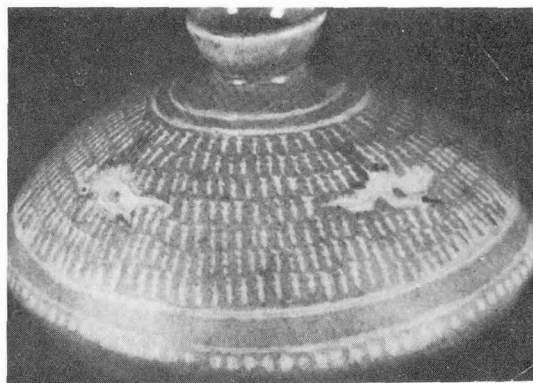


圖 34 「丁亥」銘 粉青象嵌兩點鶴文 大접片

一致하지만, 後期로 가면서 점차 匠名은 사라지고 地方名이나 品質表示, 製作年月 등이 증점적으로 나타나고 그 위치 또한 內底中央으로 變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官窯의 性格이 농후하였던 金谷里窯가 初期엔 靑內底에 陶工名을 記入한 秀作의 印花文粉靑을 만들어서 中央에 納品하였으나 後期로 갈수록 그릇의 低質化가 촉진됨에 따라 종래의 陶工名(圖 28) 대신 「光(圖 24)」「光別(光公(圖 29)」「丁閔二(圖 30)」「丁三公(圖 31) 등과 같은 銘文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銘文의 內容으로 보아서 金谷里窯는 後期까지도 官窯로서의 性格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銘文의 절대다수가 印花文粉靑에 나타나고 귀얄文에는 전혀 그 예가 없음을 비추어 印花文은 中央의 要求에 依하여 製作되었음에 反해 귀얄文은 庶民用이었을 것이라는 小山氏의 견해에 심증이 굳어지게 되며 앞서 印花文과 귀얄文의 樣式考察에서도 위와 같은 結論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本窯는 귀얄文粉靑과 印花文粉靑 다시 말하면, 庶民用과 中央공급용의 陶磁器가 함께 燒成되었던 가마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사, 窯의 年代

이미 알려진 遺物 中에 金谷里窯産이라고 생각되는 예는 「觀童心」銘粉靑접시와 月山君의 粉靑印花文胎壺이다.

「觀童心」銘접시는 本窯出土 접시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B式에 속하고 印花文粉靑의 盛期로서, 넓게 잡아 世祖年間(一四五五—一四六八年)중에 서도 末頃으로 앞서 推定된 바 있다.

다음에 月山君胎壺는 天順六年(一四六二年)頃에 만들어졌는데 本窯에서 도 이와 同一한 文樣·構圖·器形을 갖춘 壺片이出土되어 年代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두 예는 매우 훌륭한 수준의 陶磁器로서 印花文粉靑의 極盛期作品에 틀림없다. 그런데 金谷里窯의 前期가 印花文粉靑의 極盛期에 해당하므로 一四六二年直前の 어느 시기로부터 末期의 樣相을 띠는 「末四」·「丁閔二」銘의 年代인 一四七五年과 一四七七年頃을 바로 지난 시기까지로

좁힐 수 있다.

IV, 結 論

지금까지 象嵌靑磁에서 그 始源을 찾을 수 있는 印花文粉靑의 發生에서부터 發達, 그리고 衰退하기까지의 過程과 귀얄文과의 관계 등을 究明 目標로 하여 編年資料들과 全南光州忠孝洞 第一, 二號窯出土 象嵌靑磁 末流 그리고 同 忠孝洞金谷里窯出土 印花文粉靑과 귀얄文粉靑을 종합 검토하였는 바, 胎土·釉藥·器形·文樣·構圖·靑의 형태 및 받침과 燒成方法 등의 側面에서 分析하였다.

一, 印花文粉靑沙器의 時期別分類

印花文粉靑은 그 發達단계에 따라 發生期·初期·發展期·盛期·衰退期の 다섯時期로 區分할 수 있는데, 앞의 세 시기는 傳世有銘例와 胎壺를, 그리고 盛衰期는 金谷里窯出土品을 對象으로 하여 그 樣式考察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二, 印花文粉靑沙器의 發生

가, 印花文粉靑의 胎土와 釉藥은 象嵌靑磁의 그것에 雜物이 混入되었을 뿐 同一系統이다. 象嵌靑磁末流와 印花文粉靑初期에는 胎土와 釉藥에 雜物이 많이 포함되어 胎土는 짙은 취색이나 灰色을 띠고 釉藥은 綠色, 褐色, 탁한 灰靑色 등의 짙고 어두운 色調를 띤다.

그러므로 象嵌靑磁와 印花文粉靑을 釉胎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나, 發生期

따라서 文樣·構圖·施文方法·製作技法 그리고 靑의 成形手法 등에 依한 構分을 試圖하게 된다.

文樣面에서 印花文粉靑의 主素材인 菊花文(小菊花), 雨點文, 卍字文, 唐草文, 如意頭文, 圓文 등은 象嵌靑磁의 그것과 직결되는 바, 부잡·

화려하고 사실적이던 象嵌靑磁의 文樣이 印花文粉靑에 와서 단순화·생략화·圖式化되었다. 構圖面에서도 初期의 印花文粉靑은 象嵌靑磁의 영향권 內에 있다. 따라서 過渡期的인 性格을 띠는 象嵌靑磁末流는 末期의 象嵌靑磁와 初期의 印花文粉靑, 이 兩系統의 混血兒格인 例들이 많은데, 대개 靑磁의 構圖에 個體別文樣은 印花文粉靑으로 變貌하였다. 그리고 器形上으로도 口緣外反한 朝鮮陶磁系統이 한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印花文粉靑은 象嵌靑磁末流에 그 起源을 둔다.

三、印花文粉靑沙器의 變遷樣相

가, 初期

印花文粉靑의 起源을 象嵌靑磁末流에 두고 있지만, 순수한 意味의 印花文粉靑은 鮮初의 「恭安」·「恭安府」銘, 「仁寧府」銘대접, 「金」銘粉靑象嵌印花文대접, 「敬承府」銘접시, 그리고 貞昭公主의 胎壺로부터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內面의 構圖에 있어 象嵌靑磁와 印花文粉靑의 特色을 同時에 갖추고 있으며, 印花文粉靑 特有的인 印花小菊文이 內側面 中心文樣으로 등장하며 空白이었던 內底圓에도 등성등성 施文된다. 그러나 外面은 아직 象嵌靑磁末流의 構圖와 文樣인 것이 初期의 特色이다. 胎胎엔 雜物이 많이 混入되었다. 初期는 朝鮮진국以來 一四二五年頃까지로 史料된다.

나, 發展期

이 시기의 例로 「長興庫」銘대접(一四三八年頃), 「興海仁壽府」銘대접 「德寧府」銘대접(一四五五—一四五七年), 그리고 「正統十四年」銘墓誌(一四五二年)와 「景泰元年」銘墓誌(一四五〇年)를 소개하였다. 처음엔 고려 적인 要素가 나타나지만 곧 內外面이 정돈되어 印花文粉靑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며, 內底圓內의 構圖는 中央에 菊花, 그 주위에 小菊, 그리고 맨가장자리에 蝶文으로 굳어진다. 胎胎는 精選되고 技法上 많은 發展을 보이는 時期로서 一四二五年頃부터 一四六〇年頃까지로 區分된다.

다, 盛期

金谷里窯前期의 精製된 印花文粉靑이 바로 이에 直結되며, 특히 傳世品으로 「內瞻」銘대접, 「觀童心」銘접시, 그리고 月山君胎壺(一四六二年) 등을 代表的인 例로 꼽을 수 있다. 一四六〇年代의 약 一〇여년의 기간이 이에 속한다.

라, 衰退期

盛期末葉인 一四七〇년에 가까워지면서 印花文粉靑은 衰退기에 접어들며, 一四七〇年代에 들어서서는 매우 급격하게 衰退한다. 이 時期를 金谷里窯와 연결지으면, 前者는 金谷里窯中期, 後者는 金谷里窯後期에 각각 해당된다. 印花文粉靑의 時代는 一四八〇年中葉을 前後로 해서 귀얄 文주류의 時代로 代替된다.

그러면, 金谷里窯出土品의 分析을 通해 盛衰樣相을 살펴보면, 가, 盛期인 金谷里窯前期에는 器面이 매끈하게 정돈되었고 文樣·構圖·器形 및 製作技法 등에 있어 매우 洗練되었으며 모래받침에 갈발을 利用하여 단독소성하였다. 胎胎는 精選되어 灰色을 띤다.

나, 衰退期인 金谷里窯中·後期에는 胎土받침을 주로 하여 포개어 燒成하였으며, 胎胎는 雜物混入이 많아 釉色은 탁한 灰靑, 짙은 綠色·褐色系統이고 胎土는 짙은 靑색을 띤다.

다, 대접의 器形은

高麗靑磁系——은두가 낮고 口緣이 彎曲
 —은두가 다소 높아지고 口緣部가 垂直
 朝鮮陶磁系——은두가 높고 口緣이 外反

이며, 金谷里窯全期를 通해 이 두 器形이 共存한다. 이러한 現象은 印花文粉靑의 發生期以來 계속 보여지고 있으며 盛期를 前後한 時期에 는 그릇에 팽만감이 결여되어 헤벌어진 형태를 보여준다.

라, 銘文은 거의가 다 印花文粉靑에 나타나며 귀얄文粉靑엔 그 發見 例가 없다. 前期엔 釜內底에 匠名이 線刻되었고 中·後期엔 內底圓內

의 中央에 光[光公] 光[光別] 등과 같은 地名과 官物表示의 印花銘과 더불어 器內底에 「未四」、「丁閏二」와 같은 제작시기를 表하는 文字가 線刻되어 있다.

마, 銘文이 나타나는 器種과 그 位置 그리고 內容에 依해 印花文粉靑은 中央공금用이었고 귀얄文粉靑은 一般庶民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金谷里窯는 官窯의 性格을 띠었으나 한편으론 庶民의 요구에도 응하여 귀얄文을 生産하였음을 알 수 있다.

四、귀얄文粉靑沙器와의 관계

山田萬吉郎은 印花文과 귀얄文이 다른 系統이라 하였으나 本窯出土 印花文末期의 粉靑과 귀얄文粉靑이 모두 軟質의 陶器質이며 同一한 成形技法을 사용하였고, 印花文末期부터 印花文과 귀얄文의 混用이 현저해짐에 비추어 이 둘은 다른 系統이 아니라 同一한 系統이라고 판단된다.

(註)

- ① 鄭良謨, 「粉靑沙器印花文대접試考」 歷史學報 第二十七輯 歷史學會 서울 一九六五年 P, 一四八
- ② 鄭良謨, 一九六五年 前掲書 P, 一四八
- ③ 一三世後後半의 靑磁象嵌雲鶴文油瓶(圖 33) (圖博所藏)에서 완전히 硬直線形態의 雲文이 兩點文처럼 질서있게 배열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一七八七年으로 推定되는 「丁亥」銘靑磁片의 內底面에는 象徴의인 雲文으로서의 兩點文이 施文되고(圖 三三四), 以後 兩點鶴文 또는 兩點鳳凰文등이 나타난다
- ④ 上은 上品, 甲은 甲燭, 大는 大鬮을 의미
- ⑤ 太宗實錄卷三三 一十七年丁酉四月條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絕巨弊 皆從之」
- ⑥ 「彥陽仁壽府」「與海仁壽府」「鎮海營仁壽府」「三嘉仁壽府」「陝川長興庫」「金

海長興庫」「永川長興庫」「三嘉長興庫」「高靈仁壽府」「慶山長興庫」등 多數 주로 慶尙道地方이 많고 그중 長興庫와 합쳐진 例가 많다.

⑦ 「昆南長興庫」銘靑印花文대접시가 그 좋은 例이다. 昆南은 世宗元年(一四一九年)에서 一十九年(一四三七年)까지 있었던 郡名으로 이 접시의 製作年代를 말해준다.

⑧ 太宗實錄 三年辛丑四月條

「工曹啓 凡進上器皿 不用心愍緻造作 緣此不久破毀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其不用心者 徵其器皿 從之」

⑨ 이같이 稚拙한 卍字文은 象嵌靑磁末流로부터 初期의 印花文粉靑에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朝鮮極初의 例로서 國博所藏의 「義成庫」銘靑靑梅瓶이 있는데, 이 瓶은 袖胎鬚아니라 器形面에서도 肩部以下의 胴上部가 평만하고 下部가 잘록하여 典型的인 朝鮮朝의 梅瓶이다. 肩部에 象嵌한 蓮瓣文帶와 卍字文帶는 정는되지 않은 상태로서 極初期의 樣相을 잘 드러내준다. 義成庫는 太宗三年(一四〇三年) 內資寺로 되어 이 梅瓶의 年代는 朝鮮開國以來 一四〇三年까지이다.

⑩ 원래 恭安府는 一四〇〇—一四二〇년의 年代를 갖는데,

定宗實錄卷六 二年庚辰十一月條(一四〇〇年)에, 「尊上爲上王立府曰恭安中 宮府曰仁寧」

太宗實錄 二年庚子三月條(一四二〇年)에, 「革恭安府并於仁寧府增置小尹: : :」라고 되어있다.

⑪ 笠井周一郎 「三島手の 一つの 銘款」 陶磁 第一〇卷 第三號 東洋陶磁研究所 東京 一九三八年九月 P P, 二二, 二三

⑫ 拙稿, 「湖巖美術館所藏 의 在銘靑沙器印花文대접 二例」 美術資料 第二六號 國博 서울 一九八〇年六月 圖 1, 圖 5

⑬ 太宗實錄 卷三 二年壬午四月條(一四〇二年) 「置元子府號敬承: : :」

太宗實錄 卷 三五 十八年戊戌六月條(一四一八年) 「乙酉改敬承府爲順承府屬 于世子殿: : :」

⑭ 鄭良謨, 「貞昭公主墓出土 粉靑沙器草花文四耳壺」 考古美術 第五卷 六, 七號 考古美術同人會 서울 一九六四年 六, 七年 P P, 五三一—五八 이 중 P 五三

⑮ 拙稿, 一九八〇年前掲書 圖 2, 圖 6

16 拙稿 一九八〇年前掲書 P、四一

17 世祖實錄 卷一 元年閏六月條(一四五五年)

18 「德寧府」의 세자를 外側面의 繩麗文帶 中央에 横으로 記銘하였다.

19 圓筒형 또는 鍾形의 表面에

……正統十四年 己巳正月初九日以疾卒干……라고 記銘. 湖巖美術館所藏

20 內贍은 高麗朝엔 德泉庫라 하였으며 太宗三年(一四〇三年)부터 內贍寺라 하여 設立되었다.

太宗實錄 卷五 三年六月條에 「汰元官改制議政府贊成事以下……龍德泉庫

爲內贍寺義成庫爲內資寺……

21 東洋の陶磁 東京國立博物館 東京 一九七一年 P1. 一五九 및 P、二五八

도판설명참조.

22 金谷里窯出土 粉靑壺는 月山君壺와 文樣·構圖·器形과 모래받침을 사용한

점 등에 있어서 同一하며, 肩部最上段이 唐草文인 것과 雷文인 것의 두종류

가 있다.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五 光山縣條 中宗二十五年(一五三〇年)에 보면,

「……朝鮮朝에선 麗末의 명칭인 光州牧을 그대로 따르다가 世宗一二年에

茂珍郡으로 강릉하였다가 文宗元年 다시 光州牧으로, 成宗二〇年 光山縣으로

로 강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英祖朝에 刊行된 輿地圖書의 光州牧條에서 光山縣以後의 沿革을 찾아

보면, 연산군 七年에 光州로, 仁祖二年에 다시 光山縣으로 되었고, 同王一二

년에 또 다시 光州로 승격하였다가 高宗三二年 光州郡으로 되었다.

24 「輿地圖書」의 光州牧에 石保面이라는 地名이 있고 뒤에 物産條에 磁器廢令

라고 있어, 石保面은 石保里가 變한 것이며 輿地圖書의 各邑邑誌가 完成된

英祖三三年에서 四一年에 이르는 시기인 一七五七—一七六五年의 光州에는

이미 廢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承政院日記 肅宗二年八月一日에,

「……分院沙器燔造之所 排設取柴 若近十年 則樹木既盡 決難繼燔 故例移於

他處矣 今燔者造之設 已至十二年 切無刈柴之路 不得不移設……」

이라고 되어 있고, 또 睿宗一年(一四六九年)戶·刑典을 제외한 四典의 完

成을 본 후 다시 수정 교정을 거쳐 一四八五年 再完成에 이른 경국대전에는

工典에서 京外匠 중 光州에는 沙器匠이 한명도 없어, 一四六九年 以前の 어
는 시기나 혹은 一四六九—一八五年 사이의 어느 기간에 陶磁器生産이 一時 단
절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金谷里窯의 造營기간인 二〇여年間에 一時
的으로 가마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생각된다.

26 굽에서 口緣까지 斜面을 이루며 올라오지만, 口緣 가까이에서 약간 굴곡이

있어 直口式이라 命名하였으며 고려 靑磁直口甌과는 다르다. 고려靑磁系와

朝鮮陶磁系의 어느 쪽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異形이다.

27 小山富士夫, 「禮賓三島」世界陶磁全集 一四 李朝篇 河出書房 東京 一九五六

年 P、二〇二

28 山田萬吉郎, 三島刷毛目 寶雲舎刊行 P、五

29 山田萬吉郎, 前掲書 P P、七、八

全南咸平郡鶴橋面白湖里·月松里와 同羅山面二門里 등지의窯에선 귀얇文

과 粉粧文 등이 出土하였고, 全南光州市石谷面金谷里(現 忠孝洞金谷里)와 영

광군白岫面吉龍里 등지의窯는 象嵌文粉靑과 印花文粉靑의 出土地라고 소개

하고 있다.

30 山田萬吉郎, 前掲書 P、二一

全北고창군아산면용계리의 세窯가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즉,

第一窯—硬實磁器의 印花粉靑

第二窯—印花·귀얇 두系統의 粉靑

第三窯—初期白磁에 粉靑의 文樣이 施文된 混合類型

으로 각각 代表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1 山田萬吉郎, 前掲書 P、六一 圖表 I

22 〃 前掲書 P、六一 여기서 山田氏는 다음과 같은 圖表로써 설명

하였다.

印花文粉靑系

象嵌靑磁—象嵌粉靑—印花文粉靑

귀얇文粉靑系

粉粧文粉靑 귀얇文粉靑

33 山田萬吉郎, 前掲書 P、八

34 「朴德只」「金禾中」「朴金一」「得夫」「工夫」「閑生」「永守」「良金」「李井」

〔印花·귀얇文粉靑—朝鮮白磁
(混合類型)〕

「金朱」「夫」「鄭」(圖 28) 「朴文」「淮夫」(圖 14) 등 多數

35 「漢山」「金山」「岩石」(光州의 옛郡名인 端石의 誤字인 것으로 史料된)、上

(上品의 字)、甲(甲燔의 字)、公(公物임을 表示)、「光」(圖 24)(光州의 光

「光上」(光州 上品) 「光別」(光州 十別燔) 등

36 光(圖 20)、光上、光別、光公(圖 29 右)

37 仁(은서를 나타내는 仁義禮知信의 仁)、光仁、光公(圖 29 左) 丁閏二(圖 24)

(丁酉年閏二月의 意味로 一四七七年)、丁三別(丁酉年三月 別燔) 丁三公(圖

31) (丁酉年三月 公物)、未四(乙未年四月의 意味로 一四七五年) 丁四(圖

32) (丁酉年四月)

(國立中央博物館美術部)

* 이 論文은 서울大學校大學陸碩士論文인 「朝鮮朝 印花粉靑의 編年の考察」(一九八〇、六)을 要略한 것이다.

韓國의 佛教服飾에 關한 研究(二)

—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

任 榮 子

三、百濟의 法衣

백제는 僧侶의 法衣에 關계되는 遺跡이나 遺物이 傳存되는 것이 없어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살피기 어렵다.

그런데 海外에 佛法을 포교한 나라는 三國中 백제로서 제 26대 聖王 三〇년(A D 五五二)에 불교를 일본에 전했다. 이것이 日本에 불교가 전하여진 처음이다⁴³⁾.

이런 것으로 보면 백제의 一般服飾과 法衣 또한 화려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一般服飾에 있어 문헌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北史〉列傳 百濟條에는 『衣似袍 而袖微大』라 하였으니 여기서 백제인